



제1회 학제간 학술포럼
창의성과 사회발전

- 일시_ 2012년 11월 28일(수) 13:00~18:00
- 장소_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목련홀
- 주최_ 한국행동과학연구소
- 후원_ 한국교육학회, 한국심리학회

_01.jpg
(544 X 764)

머 리 말

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하고 한국교육학회와 한국심리학회
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'창의성'에 대한 학제간 학술포럼의 장을 마
련하였습니다.

창의성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한지 이미 꽤 오래 되었
습니다. 창의적 인재의 발굴과 교육 그리고 활용이 초·중등학교와
대학에서는 물론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불가피한 경쟁력
확보의 핵심요소로 간주되기 시작하였습니다. 그러나 창의성에 대
한 실천적, 응용적 관심은 많지만, 이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
적은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. 실천과 응용이 이론적 기반 위에
잘 서지 않으면 허황된 일이 되고 맙니다.

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창의성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
균형을 모색하고자 본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창의성과 사회
발전이라는 주제 하에 '창의의 풍토'(정범모), '창의성 이해를 위한
체계모델'(최인수), '3차원 창의력'(이광형), '기업 조직의 창의성 제
고 방안'(류지성), '예술 : 창의성의 다면체'(권영걸) 등 여러 관점에서
창의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귀중한 시간을
내어 옥고를 작성하고 발표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대단히 감사하
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번 학제간 학술포럼을 통해 사회 각 분야
전문가들간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고, 또한 창의성의 지평이 좀 더
넓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.

앞으로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학제간
학술포럼을 계속하고자 합니다. 학제간 연구 발전을 논의하게 될
학술포럼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2012년 11월

한국행동과학연구소장 이 종 승

차 례

■ 기초강연

창의의 풍토	3
정범모(한국행동과학연구소 회장)	

■ 발표 1 :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한 체계모델	21
최인수(성균관대 교수/다산창의성센터장)	

■ 발표 2 : 3차원 창의력	35
이광형(KAIST 바이오/뇌공학과 교수)	

■ 발표 3 : 기업 조직의 창의성 제고 방안	53
류지성(삼성경제연구소 교육혁신센터장)	

■ 발표 4 : 예술 : 창의의 다면체	81
권영걸(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)	

■ 종합토론	109
이훈구(前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)	